

사설

사색과 낭만을 즐길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만들자

-가로및 광장명 현상공모를 보며

우리 학교가 대덕에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응지를 편 지도 이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학기술대학의 창 설로 치면 벌써 14년의 세월이 지났고, 한국과학기술원 의 대덕이전으로 치면 이미 9년의 세월을 헤아린다. 10 년의 세월이면 웬만한 캠퍼스 공간도 그 공간의 주인 의 품안에 안겨 주인들에게 사색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캠퍼스는 학교를 처음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는 매우 잘 정돈된 공간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캠퍼스의 주인인 교수나 학생, 직원들에게 아늑한 휴식과 사색의 공간으로 다가 오지 않고 있다.

캠퍼스에 등성등성 서 있는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하 기에는 너무 키가 작고 가늘다. 곳곳에 있는 넓은 잔디 광장에는 편하게 휴식을 취할 만한 벤치하나 변변하게 마련한 곳이 거의 없다. 우리 학교의 캠퍼스는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8천명의 식구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공 간이라기 보다는 외부인들을 위한 전시적인 공간으로 만 머물러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캠퍼스 공간자체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기숙사로 직행하여 한낮의 우리 캠퍼스 는 바삐 불일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눈에 될 뿐, 여유롭게 캠퍼스를 산책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무릇 대학이 젊음과 낭만이 활기있게 숨쉬는 곳이라고 할진대, 이와 같은 캠퍼스의 풍경은 아무래도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난 3월 21일 캠퍼스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 의 발표를 계기로, 우리도 이러한 열악한 캠퍼스 환경 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캠퍼스 환경의 개선을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공간 자체 는 공간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간은 그 공간의 주인인 교직원, 학생들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 면서 더불어 변해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연구와 학업에 바쁜 와중에서도 조금씩의 시간이라도 내어 캠퍼스를 산책하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자. 이러한 캠퍼스의 문화가 정착되면, 자 연스럽게 그에 맞는 캠퍼스 공간도 창출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학교당국차원의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IMF사태를 맞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투자가 쉬운 것만 은 아니다. 그러므로 캠퍼스의 주인인 우리들 차원에서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이루는 것이 순 서일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캠퍼스 곳곳을 우리들의 체취가 묻어나는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다.

사실 캠퍼스 조성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와 친근한 도로와 건물, 광장이나 동산에 마땅히 불러질만 한 이름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연구와 강 의에만 매몰되고, 대학에서 누려야할 낭만이나 사색등 에 인색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과 기원신문사와 학교당국의 주관으로 가로및 광장명 현 상공모가 펼쳐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캠퍼스 곳곳에 친근한 이름을 붙여 우리 대학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르다면, 이러한 공간은 우리에게 다시 의미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본사와 학교당국의 주관으 로 금번 펼쳐지는 가로및 광장명 현상공모에 학생은 물론 교수와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

중학생회의 학생운동

총학생회가 비판받고 있다

학우들 의견에 반하는 한총련 활동이 과연 정당한가?

'한길가는 총학생회'를 기치로 자신감 에 넘쳐 출발했던 13대 총학생회는 지금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다. ara bbs의 총학 게시판에는 "총학이 '학내 문제가 우선하고 그 이후에 정치 문제를 다룰 것이다'라고 한 공약과는 달 리 한총련 재가입 등의 정치 문제를 우선 하여 다루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 오고 있다.

학우들 다수가 바라지 않는 정치활동은 재고해 보아야

학우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가장 큰 불 만은 무엇보다 정치활동에 관련된 것이 다. 우리 학교는 작년 여름학기 한총련 탈퇴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 으로는 우리 학교는 한총련에서 탈퇴한 상태이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우리 학교 의 이름 아래 대전총련 출범식에 참여하 였고 뿐만 아니라 한총련의 정치적 입 장을 그대로 취한 자보와 게시물들을 배포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의 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 우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 대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총학생회가 참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은 '우리 학 교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다. 총학생회 부회장 양중석씨는 지난 달 30일 있었던 전학대회에서 "작년에 탈 퇴결정후 탈퇴서를 제출할 당시에, 한총 련 측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에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정식 절차를 밟 지 않았으므로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한총 련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우리 학교는 한총련에

가입된 상태이며 따라서 당연히 출범식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해의 설문조사에 대해 진행 과정이나 실시하게 된 동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각종 게시물 등을 통해 발표한 입장은, "작년 여름 정부가 한총 련 무너뜨리기의 일환으로 대의원들에게 구속의 위협을 주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탈퇴하였고, 우 리 대학도 이중 하나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작년 여름 탈퇴하기 전에 진행되었 던 설문조사에는 단지 300명만이 참여하 였으므로 이를 전체 학우들의 입장으로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우들은 이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을 때, 80%의 학우들 -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지지율입 니다 - 이 탈퇴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학우들이 한총련 활동에 반대하 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 학우의 총학 입 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애 써 축소하며 학우들의 의사와 반하는 한 총련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 한총련 재가입 찬반 투표가 이루어질 예 정이다. 그러나 재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이라도, 학우들의 바람과 맞지 않는 한총 련 활동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영무세인가?

한총련에 대한 객관적 입장 견지해야

또 총학생회의 한총련의 의견을 걸러냄 없이 그대로 학우들에게 '선전'하는 총학 생회의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이름을 내세운 자보

나 게시물들을 학교 전역에 배포·부착하 고 있으며, 한총련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 입장이 한총련과 동일한 것 이 절대 다수이다.

또한 총학생회가 한총련 재가입 투표와 관련하여 발표한 총학생회의 입장이나 성 명서, 아라의 총학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을 보면 학우들을 '어용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들로 인해 학생운동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분들이 한총련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며, 재투표 이전의 선전 기간에 한총련의 참 모습을 보여드 리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입장이 '객관적'인 가?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객관적이 되려 면 한총련의 자기변호와 함께, 기성세력 이 한총련을 보는 시각, 신흥 학생운동

세력이 한총련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관 점에서 한총련을 바라본 시각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한총련은 '100만 학우들의 불패의 애국대오'라는 그들만의 입장에서 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학우 의견에 귀 기울이는 총학 모습으로 돌아와야

학우들은 중우(衆愚)가 아니다. 그들은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의 의견을 가진 하나의 개체이다. 그들의 의 견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그들을 길을 가르쳐주어야 할 어린 아이들로 보는 것 은 기성 정치인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아들여 할것이다.

박호진 기자



학내에 붙은 한총련 관련 자보들